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 사용이 초등학생들의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Internet Chatting Language to the Writing of Elementary Students)

김 종 진* 김 여 진** 김 종 훈***
 (Jong-Jin Kim) (Yeo-Jin Kim) (Jong-Hoon Kim)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언어가 초등학생들의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도내 초등학생들의 일기장과 편지를 조사했다. 또한 인터넷 언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일기장과 편지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인터넷 언어의 흔적이 나타났으며, 그 정도는 구어체인 편지에서 더 심했다. 이에 컴퓨터교육분야에서는 첫째,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둘째, 인터넷 언어를 필터링해주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어교육분야에서는 첫째, 말출입표('…')를 마침표(.) 대신 사용하거나, 필수문장성분을 생략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방식형성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문장부호의 과다사용 및 오용(예: 물음표나 느낌표를 겹쳐 사용하는 것)은 '감정의 절제'를 특징으로 하는 세련된 글쓰기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연구돼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 the influences of net-speak on actual writing of elementary schoolchild. So I investigated diaries and letters of elementary schoolchild in Jeju. And I researched through questionnaire their recognition of net-speak. As the result, it became clear to be widely used net-speak both diaries and letters, especially letters. In computer education, fir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must be educated. The second, software which filtering net-speak have to be developmented. In language education, first, it must be researched to influence the replacing a ellipsis symbol with a period or omitting the subject, complement, and object in sentence on elementary schoolchild's way of thinking. The second, it needs to be researched the influences of the misuse of sign in sentences on the writing of elementary schoolchild.

* 정희원 : 홍익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논문접수 : 2002. 6. 24.

** 준희원 : 제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학부과정

심사완료 : 2002. 9. 12.

*** 정희원 : 제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조교수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PC통신 및 인터넷의 보급은 새로운 문화현상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들의 언어사용행위는 각계 각종의 관심을 사고 있다. 이는 이들이 일상언어의 규범을 파괴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언어는 사이버공간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자판을 통해 얘기하고, 일대 다수의 대화가 가능하며, 익명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기존 문법을 파괴한 언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다. 사이버공간 자체가 기존 규범의 ‘파괴’(성별, 나이, 지역, 가치관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기에, 언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규범이 파괴된 언어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만 머무르는 것일까? 만약 그러한 파괴된 언어가 사이버공간의 담장을 넘어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한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이며,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디까지 제한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1.2 ‘인터넷 언어’라고 명명한 이유

인터넷 언어는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그것의 핵심발원지가 사이버공간의 채팅실이었기 때문에 채팅언어, 혹은 대화방 언어라고도 불린다. 그것의 시작이 천리안, 하이텔 등 90년대 초반 PC통신이었기 때문에 PC 통신언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언어’라고 명명했다. 그것은 채팅언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펴졌고(전자게시판 등), PC 통신언어라고 부르기에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그 범주가 너무 좁다. 따라서 그 둘을 조합하여 ‘인터넷 언어’라고 명명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언어’를 가상공간의 대화방에서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언어로 국한하고자 한다.

2. 인터넷 언어의 성격과 특징

2.1 인터넷 언어의 성격

인터넷 언어는 자판을 통한 구어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인터넷 언어에 대한 가치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대화방에서 어떤 학생이 ‘날 미더도 되(나를 믿어도 돼)’라고 했다 하자. 인터넷 언어가 구어체라는 가정에서 본다면, 이 말은 하등 문제삼을 것이 없다. 왜냐면 우리 역시 일상생활에서 ‘믿’‘어’‘도’‘돼’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미더도되’라고 발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어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의 말은 문법파괴, 규범파괴의 언어가 된다.

2.2 인터넷 언어의 특징

인터넷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인터넷 언어의 특징을 도치, 은어와 속어, 줄임형, 소리나는 대로 적기, 이모티콘·의성어·시각적 이미지의 전달, 아라비아숫자와 로마자의 도입, 첨가, 외래어·외국어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도치

도치란 기본어순을 지키지 않고 성분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국어어순에서 서술어를 제외한 주성분(주어·목적어·보어)들의 뒤섞기는 자유롭게 일어난다. 주어와 목적어, 주어와 보어의 자리바꿈은 자유롭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주어와의 도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장은 국어의 모든 문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서술어 뒤로의 이동은 주로 구어체에서만 나타난다[9].

국어어순의 원칙들은 첫째, 서술어가 문장 끝에 온다. 둘째, 주어가 목적어에 앞선다. 셋째,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온다. 넷째, 문법형태소인 어미, 조사는 어절 형태소의 뒤에 온다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중 첫째와 둘째의 원칙은 국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어순으로 기본적인 어순의 모습을 보

이는 것이지 이를 어기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셋째[2]와 넷째 원칙은 국어에서 예외가 없는 절대원리로 이를 어기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8].

인터넷 언어에서 나타나는 도치문의 유형은 첫째, 주성분, 즉 필수성분(주어·목적어·보어)이 서술어를 넘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도치문 둘째, 부차성분(부사어·관형어)이 서술어를 넘어 이동하는 도치문, 셋째, 독립어가 서술어를 넘어 이동하는 도치문, 넷째, 절이 서술어를 넘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도치문 등이 있다[9].

(2) 은어와 속어

은어는 특정한 사회 집단, 또는 한 패거리나 동아리끼리 특정한 뜻을 숨겨 불인 말로서 저희들끼리만 익숙하게 사용하는 비통용어이며, 그 사용 집단으로는 상인·학생·군인·도박인·불량배 등 사회적 계급을 가질 수 있는 단체에서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속어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정통어법에서는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즉 저속하고 품위가 낮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9].

인터넷을 주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는 주로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 혹은 지식인들이다. 이처럼 일정한 집단을 구성하고 있고, PC통신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익숙하게 사용하는 비통용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은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층이 학생층과 공유하고 있으므로 학생 은어들이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PC통신 사용자층은 솔직하고 직설적인 언어를 선호하여 속어적인 성격도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인터넷 언어는 은어와 속어적인 성질을 공유하면서 이들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9].

(3) 줄임형

일반적으로 국어의 언어현상에서 축약이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서 제 3의 음운이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것은 자음축약과 모음축약(음절축약)으로 나뉜다. 또한 탈락은 ‘두 개의 음운이 만났을 때 어느 한 음운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역시 자음탈락과 모음탈락으로 나뉜다[12].

이에 해당하는 인터넷 언어는 축약의 경우 ‘드녀(드디어), 라됴(라디오), 비됴(비디오), 토욜(토요일), 설(서울), 젤(제일), 앤(애인), 어솨요(어서와요), 갈(가을), 멜(메일), 낼(내일), 맘(마음), 첨(처음), 담(다음), 겜(게임), 멜(메일), 갈쳐(가르쳐)(이상 모음축약), 추카(축하), 편케(편안하게), 글쿠나(그렇구나)(이상 자음축약)’ 등이 있다. 또한 탈락의 경우, ‘조아(좋아), 마니(많이), 시로/시러(싫어), 셈(시험), 쉽(수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 언어에는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규칙적인 현상외에도 ‘춥(초보), 옵(예비), 짬(재미), 월(우리), 넘(너무), 아무(암), 아둬(아이디), 점(전부), 언(어느)’ 등 한 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변이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축약과 탈락현상으로 세분하는 것은 다분히 인위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를 모두를 아울러 ‘줄임형’으로 제시했다.

줄임형 중에서 특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2음절의 단어가 1음절로 줄어들 때 줄어든 1음절의 형식이 받침 ‘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축약 방식은 본래 단어의 1음절에 2음절의 ‘ㅁ’을 받침으로 붙이는 방식이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1음절이 모두 개음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2음절의 자음을 가져다 받침으로 쓸 수 있는 점이다. 하나 더 특징적인 면은 2음절에 ‘ㄱ, ㄹ, ㄴ’ 등의 다른 자음이 함께 있음에도 축약형에 참여하는 자음은 언제나 ‘ㅁ’이라는 점이다. ‘겜(게임), 금(그럼), 냬(때문), 넘(너무), 맘(마음), 담(다음), 암(아무), 쟁(재미), 짐(지금)’ 등이 그것이다[11].

줄임형 중엔 생략 형태도 있다. ‘ㅋㅋㅋ(크크크), ㅎㅎㅎ(흐흐흐)’와 같이 의성어에서 모음이 생략된 경우와 ‘ㄱㅅㄱㅅ(감사감사)’와 같은 경우도 있다.

내용생략의 경우 문맥에 의해서 언급한 내용은 되도록 말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만을 말하려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며,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거나 상황에 의해서 표현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나타난다[9].

이와 같은 줄임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화방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되는 주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거나 대화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신속한 타자가 필요해져 축약, 탈락, 생략 등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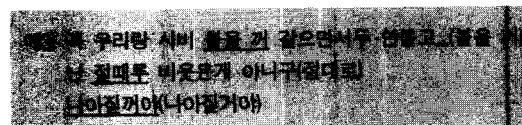
(4) 소리나는 대로 적기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낱말의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하고 있다[14]. 즉 명사와 조사, 서술어 어간과 어미의 연결에서 끊어적기(분절)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구어에 가깝다는 특성, 타수를 줄이려는 경제성과 표기의 용이성 등의 원인 때문에 인터넷 언어에선 소리나는 대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11].

소리나는 대로 표기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띤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구어)의 형태가 다양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그 특징을 열거해 본다.



예1은 이어적기(연철)방식으로 표기한 것들이다. ‘인가니’는 명사 ‘인간’에 조사 ‘이’가 이어지면서 연철이 일어났고 예2는 서술어 내부에서 연철이 이루어졌다[11].



예3은 모두 ‘ㄹ’ 아래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그대로 표기해 반영한 것이다. 자판에서 된소리를 적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ㄹ’ 아래에서의 된소리 표기는 맞춤법과 문법지식의 부족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11].

예4) 너희들 이 이야기 알아...?(알아) 포기하구 나한테 겹은~(포기하고)

예4는 비표준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고 있다. ‘알어’ ‘포기하구’ 등은 주로 중부 방언을 반영한 것이다[11]. 모음이 바뀌는 현상도 있다. ‘-꼬’를 ‘-ㅋ’로, ‘그’를 ‘ㅌ’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이밖에 ‘-’가 ‘ㅣ’나 ‘그’로 바뀌기도 한다.

(5) 이모티콘 · 의성어 · 시각적 이미지의 전달

컴퓨터를 매개로 의사소통을 할 경우 그 이용자는 비언어적 단서를 전달할 때 한계를 갖게 된다. 컴퓨터 매개 환경의 의사소통은 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이 텍스트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컴퓨터 매개 환경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비언어적 단서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된다[11]. 이모티콘, 의성어 · 의태어, 시각적 이미지에 의한 전달이 바로 그것이다.

인터넷의 유즈넷 뉴스그룹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한 이모티콘(Emoticon)은 감정(Emotion)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로 컴퓨터 자판의 문자와 기호, 숫자 등을 적절히 조합해 보통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리면 사람의 얼굴모양이 나타나도록 조합되어 있다[4]. 이러한 이모티콘은 표정, 기분, 외모, 신분 등의 비언어적 단서를 시각적 요소로 전환한 것으로서 말하는 이가 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표정이나 감정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9].

인터넷 언어에서의 의성어는 놀라움, 재미있음, 웃음소리, 당황스러움, 슬픔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모티콘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모티콘이 주로 시각적 기능에 의존하는 동작 또는 의태어의 전달이라면 언어형식을 통한 아래의 표현들은 실제 소리의 감각에 직접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성어 전달에 크게 유리하며 앞의 방식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라하겠다[11].

예5) 낭낭 무우쿠 암~ 오잉~ 음... 아궁 임? 코코루 무우쿠 무우~ 헛... 허거걱 허걱 혁!!! 흑흑... 흠낭

서체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아래의 예들이 그것이다[9].

예1) 아무래도 초딩...

겁이 너무 느려서...

예2) 요즘 대화방수가 너무 즐었어....

근데 모하고 놀점..?

예3) 띠 || 이

하이루!!!

예4) 왜?????

예5) 꼬~육~나기지마

으악~

예1은 줄임표를 대신하여 문장 부호를 사용한 듯 하나 이런 식의 생략된 대화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줄임표의 기능은 없고 온점(.)을 겹쳐 쓴 것이나 다를 바 없다[9].

이는 예2를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으로 문장 끝에 온점을 써야 할 것이나 여러 개를 겹쳐 쓴 것으로 보아 습관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예3, 4도 의미를 더욱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느낌표 3개를, 더러는 그 이상을 겹쳐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땡’이라는 단어의 서체변경을 통해 말하는 이의 의미를 더욱 강력히 전달하고 있다. 예5의 ~도 많이 보이는 표현인데, 이는 명령이나 요구 외에 응석이나 애교를 부린다는 느낌을 준다[9].

(6) 아라비아 숫자와 로마자의 도입

한글대신에 숫자나 로마자를 사용하거나 한글, 숫자, 로마자를 조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발음의 유사성에 의한 것인데 그 예를 보면, ‘20000(이만), 바2(바이 : BYE), 하2(하이 : Hi)’ 등이 있다.

(7) 첨가

어미의 끝에 ‘o, ㅅ, ㅁ, ㅂ’ 등을 첨가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즉 ‘없당, 예쁘당, 되세염, 그런감, 아닌감, 네, 암’ 등이다.

또한 상투적인 말버릇이 자주 첨가되어 사용된다. 필수 성분 외에도 말하는 이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부수적인 성분을 첨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실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없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주로 문두나 문미에 첨가되어 말하는 이의 심리상태를 반영해준다[9].

(8) 외래어/외국어

외래어나 외국어도 대화방에서 많이 사용된다. 영어를 영문으로 적는 일도 많고, 영어 단어를 한글로 적어 하나의 문장처럼 사용하는 일도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hi’가 ‘하이’, ‘하이루’, ‘할릉’ 등 여러 가지 다른 형식으로 적히고 있는 점이다[11].

3. 도내 초등학생들의 편지와 일기장에 나타난 인터넷 언어의 영향

3.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편지와 일기장이다. 조사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 까지이다. 고학년으로 국한한 것은 어느 정도 한글 맞춤법에 대한 지식이 정립되는 시기가 4~6학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편지는 86통이고, 일기는 79권이다.

3.2 조사 이유 및 한계

일기와 편지를 구별해서 조사한 것은 일기의 경우 문어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편지는 구어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가 규범적이고, 또한 한 규범적이어야만 하는 세계라면, 후자는 융통성이 있기에 다소간의 ‘파괴’가 허용이 되는 세계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조사대상 일기장들은 하루에 한번씩 담임교사의 검사를 받고 있어 더욱더 규범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일기장보다는 편지가 인터넷 언어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판단해볼 수 있는 것은 교사의 통제 하에 놓여있는 일기장에서 인터넷 언어의 영향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규범파괴의 인터넷

언어가 일상생활에 상당히 깊숙하게 침투한 것이므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표시된 횟수는 문장단위이다. 인터넷 언어의 범주는 앞장의 것을 따랐다.

3.3 조사결과

(1) 편지

1) 줄임형

앞장에서 인터넷 언어에서 나타나는 축약과 탈락 현상을 합쳐 편의상 '줄임형'이라 하기로 했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사결과 편지에 나타나는 줄임형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었다.

첫째, 2음절의 단어가 1음절로 줄어들 때 줄어든 1음절의 형식이 받침 '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다.

둘째, 주로 웃는 말에 나타나는 경우로써 모음이 생략된 표기형태이다.

셋째, 중부방언과 줄임말의 혼합형이다.

넷째, 격조사의 생략이다. 특히 주격조사의 생략은 빈번하게 나타났다.

하여! ○○이 내는 ○○이.(주격 조사17회)
○○월○일 날 써서 이 모임...[이하](서술격 조사)/

다섯째, 내용생략이다.

나 할말이 있겠도 / 여기 앱도 안보내고...^^

여섯째, 그밖에 축약·탈락 등 일상 생활 속의 구어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줄임형과 인터넷 언어에서만 보이는, 즉 문법적으로 해석이 안되는 줄임형이다.

온~온걸보니~ 봄자전거 같이오랜만에/
풀드라이브를해온 이유는 왜? 만나때문에 들은너(무리)/
나 ○○이네 끌어 크리스마스터 뭐 할거니?내일)/
포기나 ○○대(반기위)/

2) 소리나는 대로 적기

인터넷 언어에서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경우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앞장에서는 이어적기(연철)방식, 자음동화현상이 일어난 경우, 'ㄹ'아래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 표기에 반영된 경우, 비표준 발음이 표기에 반영된 경우, 그리고 모음을 사이에 대치가 일어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바 있다. 초등학생들의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이 나타났다.

첫째, 일반언중들이 혼동하기 쉬운 모음을 사이의 대치가 일어난 경우다. 즉 '-지'를 '-쥐'로, '-교'를 '-꾜'로 표기한 형태다. 물론 그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모음대치가 보인다. '-그'에서 '-그'로의 대치도 자주 나타났는데 이는 중부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방언을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경우도 많다는 것으로 미루어 지역·세대 등의 벽이 없는 사이버공간의 영향이 일상 언어 속에 침투해 제주방언과 중부방언의 공존형태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예: 쇠랑하는 내 덩생 신디루...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로...))

그리고 너 꽈 날 보호해 조(보호체제 7회)/
우리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앞으로도 25회)/
쇠학년 해바리기야 이일...(아이들)/
쇠왕하는 내 영생(동생) 신디루(트)... 쿰쿰... /
난 알취 킥킥~(합자 2회)

둘째, 제주방언을 소리나는 대로 그대로 표기한 경우다(17회).

너랑 잘 어울리커라! 잘 지내니!
야 너 말 자꾸 보님나 나 침침시간 여성/
쇠왕하는 내 영생 신디루... 쿰쿰...

셋째, 연철형식이다. 특히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전적으로 인터넷 언어의 영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맞춤법과 문법 지식의 부족이 인터넷 언어에 영향을 끼치고 또 그 인터넷 언어가 일상언어의 맞춤법 파괴를 고착화시키는 상호작용현상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방학잘 보내고 새해도 복많히 바이방아 2회)/
너한테 정말 만나 써보지 않은 것 같아(많이)/
우리 아무로 새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앞으로)/
추기추기~!(축하축하)

3) 이모티콘 · 의성어 · 시각적 이미지의 전달
인터넷 언어에서는 이모티콘과 의성어, 그리고 서체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감정을 표현한다. 초등학생들의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타났다.

첫째, 이모티콘을 사용한 경우다.

합통~~ 나 ○○당 씨마소 9회)/
5학년이 되어도 우정 변치 말자...~^(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
울든나방 일체몇은 미소 ^~ 엄니때문에 물온니(기분좋음: 4회)/

둘째, 소리의 감각에 직접 호소하는 의성어의 경우다.

나두 좋아해주라 응 (허허)/
야 너 나에게 이상한 편지지 좋지 (잉잉)~~

셋째, 문장부호나 서체를 사용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다.

- ① 주로 문장 끝에 응석이나 애교를 부린다는 느낌으로 표기된 듯한[9] ‘~’가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겹쳐진 형태로 나타났다(30회). 문장부호와 혼합해 사용한 경우도 있다.

안녕~ 바이 바이~” 하이루!!~○○ 나 ○○이당/
정말 생일축하한다. 축하해~!(2회)/

- ② 온점을 여러개 겹쳐 쓴 경우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줄임표(…)'의 기능을 대신한 경우도 있으나 마침표를 써야 할 곳에 자리한 경우도 많아 습관적인 표현[9]으로 보인다.

난 내년 여름에 제주도가... 그리고....그 사건 ㅠㅠ/
근데 ○○○하고 ○○이가 문제다...!/

- ③ 문장부호를 두개 이상 겹쳐쓰거나 혼용, 혹은 서체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이는 의미를 더욱 강력히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

안녕!!!/ 스 토 르 토 ○ 응 !!/
우리 저번처럼 재미있게 사이좋게 지내자(응!!!?)

4) 아라비아숫자와 로마자의 도입

발음의 유사성에 의해 한글과 숫자, 한글과 로마자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주로 한글과 숫자의 조합이 많이 나타났다.

안녕. 20000(이만)/
NO.02라고 쓴 것은 2째 편지 그런 거야~(둘째: 2회)/
돈두 마누•2 받아리~!(많이)/

5) 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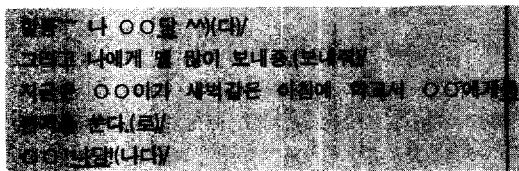
어미의 끝에 ‘○, ㅅ, ㅁ, ㅂ’ 등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부드럽게(‘○’, ‘ㅁ’) 혹은 힘있게(‘ㅂ’, ‘ㅅ’) 끝내거나 장난기있게 말하는 경우, 혹은 기원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친구들간에 보내는 편지의 특성상 부드럽고 애교있는 표기형태인, ‘○’ ‘ㅁ’첨가만이 나타났고, ‘ㅅ’, ‘ㅂ’첨가는 보이지 않았다.

첫째, ‘ㅁ’첨가의 경우이다.



둘째, ‘○’첨가의 경우이다(16회).



6) 외래어

영어지식이 부족한 초등학교 학생들인 만큼 외래어는 주로 인사말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인사말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혼한 현상인 만큼 그 자체를 인터넷 언어의 영향이라고 단정짓는 건 무리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같은 말을 여러 형태로 변이시키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언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Hi’와 ‘Bye’의 변이형태이다.



둘째, 그외 외래어를 섞어쓴 경우이다.

Hi ○○ I'm ○○/아이엔 쓰리쓰리~ 빠빠이!/
글구 나도 미안쓰리...

7) 기타

이 네자 카카오 네트워크
하하한 다른 단어 빼먹하고 글에 암튼고 그려져마...

아주 많은 학생들이 ‘안’과 ‘않’을 잘못 표기하고 있다. 인터넷 언어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맞춤법 지식의 부족 때문만은 아닌 듯 하다.

(2) 일기장

1) 도치

부사어는 표현효과를 위해 문장 내나 문장의 뒤로 자리바꿈이 비교적 자유로운 성분이다.[9] 일기장을 분석한 결과 편지글에서는 보이지 않던 도치문이 나타났는데, 모두 부사어 도치문이었다. 도치현상은 문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정도의 문법지식이 갖추어진 뒤 개인이 표현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이를테면 의복에 있어서 ‘장식물’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 문법지식이 완성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의 일기장에서 발견되는 도치문은, 의복을 바르게 입을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식물’부터 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듯 하다. 이에 대한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난 칭칭한 걸 못서다. 진짜/진짜도 살펴졌다. 아주/
풀이 막~ 푸른 푸른 푸른 아주 살렸다. 아주한처럼

2) 은어 · 속어

의외로 편지글에서는 한번도 나타났지 않았던 은어가 몇 개 나타났다. 주로 PC통신과 인터넷을 그 발생지로 하면서 매스컴 등의 영향으로 일상 생활 속에 자리잡은 것들이다. 특히 ‘짱’은 그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햇빛때문에 찢나지만 놀다가 터워 집에 들어가 놀았다.
(짜증)/ 기분이 아주 텁이었다.(최고로 좋다)

3) 줄임형

편지와 마찬가지로 일기장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줄임형이 눈에 띠었다. 특히 내용생략은 일기장에서 많이 보인 특징적인 현상인데, 이는 말줄임표('…')의 과다사용 및 오용과 관련되어 좀더 연구돼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첫째, 2음절의 단어가 1음절로 줄어들 때 줄어든 1음절의 형식이 받침 '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다.

사회여? 네님 좋아요(너무너무)

둘째, 격조사의 생략이다.

오늘나(는) 사탕 많이 밟았다

셋째, 내용생략은 일기장에서 많이 보인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인터넷 언어는 일대 다자간 대화이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내일 가져가서 확인... / 무엇이냐면, 나도 ○○처럼 독서를 많이 하겠다는 다짐... / 오늘도 무지무지 늦게 일어났는데... 비밀! 7시55분... / 오늘 일요일이라서 예습을 하였다. 사회숙제도 하고...

넷째, 그밖에 축약·탈락 등 일상 생활 속의 구어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줄임형과 인터넷 언어에서만 보이는, 즉 문법적으로 해석이 안되는 줄임형이다.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호기심이 많고여(많구요)/ 한참 재밌게 축구를 할때 ○○이가 전공에 내가 미쳤대(맞았다는6회)/ 개나리반 첫팀(화이팅)

4) 소리나는 대로 쓰기

일기장에서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경우는 모음을 사이의 대치와 연철형식으로 그 형태를 나눌 수 있다.

첫째, 일반언중들이 혼동하기 쉬운 모음을 사이의 대치(즉 'ㅍ'를 'ㅋ'로, 'ㅌ'을 'ㄱ'로 등)가 일어난 경우도 많이 띠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부방언의 영향으로 보이는 '-그'에서 '-ㅌ'로의 대치가 매우 자주 나타났다.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호기심이 많고여(많구요:3회)/ 우리가 점심을 먹는데도 몇번 봄아래 학교 있다.—우린 별로 할 수 없었다('그'에서 'ㅌ'로의 대치: 19회)

둘째, 연철형식이다. 편지에서와 같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았다.(내전→내건) 이역시 전적으로 인터넷 언어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 듯 하다. '소리나는 대로만'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한글의 구조상 성인들도 아래의 예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상 조사대상인 5,6학년 학생들은 이미 맞춤법 지식을 완성해야 할 시기이다. 교육적으로 적극적 대처가 시급하다.

컴퓨터는 재미있씨(재미있어)/ 교무실에서 머라고 하다
개(뭐라고5회)/ 규범이랑 내꺼 사준다고 하였다(내거:18회)/
아프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텐데.(앞으로는:2회)/

5) 이모티콘·의성어·시각적 이미지의 전달

이모티콘, 의성어, 시각적 이미지를 표기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는 일기장에서도 나타났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형태들이다.

첫째, 이모티콘을 사용한 경우다.

오늘은 컴퓨터를 많이 해서 좋았다^^/오늘은 화이트데
이네^^미소 3회)/좋겠지^좋겠지~?^^!@~비가 조금만
왔으면 좋겠다^^/기분좋음: 3회)/아~~아프다.T.T(우는 모
습: 3회)

둘째, 소리의 감각에 직접 호소하는 의성어의 경우다.

흔들리 흔들한 학교가 모든 생각을 끌고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학다움에 휴식하다

셋째, 문장부호나 서체를 사용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다.

- ① 주로 문장 끝에 응석이나 애교를 부린다는 느낌으로 표기된 듯한[1] ‘~’가 편지글과 같이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겹쳐진 형태로 나타났다(10회).

○○이 생활이다 그래서 일상은 평생이 더~~록,

- ② 온점을 여러개 겹쳐 쓴 경우다. 줄임표(…)'의 기능을 대신한 경우도 있으나 마침표를 써야 할 곳, 혹은 어떤 문장부호도 필요하지 않은 곳에 자리한 경우도 많다.

선생님은 일찍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는 성공, 나는 청월로 미친다. 아무나 아파한다. 예전에다가 춤이었기를 매우니 얼마나 기쁠겠어요

- ③ 문장부호를 두개 이상 겹쳐쓰거나 혼용하는 경우이다.

나니 전기철약을 했을까??????/나니 혼돌리는 이를 뒤 이빨이 거디란 춤처럼

- ④ 문장부호를 오용하는 경우이다. 문장부호는 말 그대로 문장의 끝에 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장 중간중간에 문장부호를 넣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그나저나 러가 없는 내이다/ 피구를 잘하려면 이거
같이 하니까 지키면 된다 꾀을 말이다

6) 첨가

어미의 끝에 ‘○’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경우(예: 그 애는 나에 제일통 친한 친구였다.)가 있었고, 상투적인 말버릇(주저어, 부가어)이 보였다.(예: 근데 뭐 재밌는 것도 없었다.(4회)) 이는 머뭇거리거나 발화를 주저하는 경우에 쓰이는 것으로 없어도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9] 대화방에서는 빠른 대화 전개로 ‘잠시 생각할 여유를 갖기 위해’ 이와 같은 주저어나 부가어가 자주 쓰이는 데, 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7) 기타

3시간 힘어온니 디리가 할루 알아왔다(3회)/
평생은 조금도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3회)

편지글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이 ‘않’으로 표기된 경우가 있었고, ‘하려고, 가려고’ 등이 ‘할려고, 갈려고’ 등으로 쓰인 경우도 있었다.

3.4 조사결과 분석

앞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일기장은 문어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 교사나 부모의 통제 하에 놓여있다. 반면 편지는 구어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 동료간에 교환되는 글이고, 교사나 부모의 통제권 밖에 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언어의 영향이 일기보다 편지에 뚜렷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었다. 조사결과 일기장과 편지 모두 2장에서 정한 ‘인터넷 언어의 특징’들에 해당하는 말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편지글과 일기장에 모두 나타난 특징은 줄임형, 소리나는 대로 쓰기, 이모티콘·의성어·시각적 이미지의 전달, 첨가였다. 편지글의 경우 편지 한 장이 인터넷 언어로 접觸된 경우가 많았던 반면, 일기장에 나타난 인터넷 언어는 분산되어 조각조각 나타났다. 그만큼 편지가 인터넷 언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구어체라는 인터넷 언어의 성격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은 일기장과 편지글에 나타난 인터넷 언어의 빈도수를 2장에서 정한 특징에 따라 표로 작성한 것이다.

(단위: 문장기준)

인터넷 언어의 특징	편지	일기장
도치	-	3회
은어와 속어	-	6회
줄임형	44회	21회
소리나는 대로 적기	65회	64회
이모티콘 · 의성어 · 시각적 이미지의 전달	62회	40회
아라비아 숫자와 로마자의 도입	7회	-
첨가	17회	4회
외래어/외국어	24회	-

표에서 보듯이 편지와 일기장 모두 줄임형과 소리나는 대로 적기, 이모티콘 · 의성어 · 시각적 이미지의 전달(이하 이모티콘) 등의 인터넷 언어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편지글에서 이모티콘의 빈도가 특히 높은 것은 편지글이 일기장보다 풍부한 감정표현을 필요로 하는 구어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편지와 일기장에서 5회 이상의 빈도를 보인 글의 형태는 다음 표와 같다.

	인터넷 언어의 특징		횟수
편지	줄임형	주격조사의 생략	17회
	소리나는 대로 쓰기	모음대치	'-끄'를 '-��'로 대치(예: 보호해줘→보호해조)
			'-그'를 '-그'로 대치(예: 앞으로도→앞으로두)
	이모티콘	이모티콘	^(미소)
		시각적 이미지의 전달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겹쳐진 형태)
일기	첨가	'○'첨가	16회
	외래어/외국어	'Hi'의 변이형태	15회
		'Bye'의 변이형태	6회
	소리나는 대로 쓰기	'-그'에서 '-그'로의 대치(예: 별로→별루)	19회
	연철형식	'뭐라고 하다가'→'이라고 하다가'	5회
		'내가 사준다고'→'내꺼 사준다고'	18회
	이모티콘	'~'(최대 3개까지 겹쳐진 형태)	10회

4. 도내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언어에 대한 인식

인터넷 언어에 대한 도내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학년 학생은 총 13명이며(남자 6명, 여자 7명), 5학년은 총 43명(남자 20명, 여자 23명)이다. 그리고 6학년은 총 44명(남자 28명, 여자 16명)이다. 설문문항은 총 16개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4.1 설문지의 구성 및 조사 과정

설문조사는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00명(회수율 100%)을 대상으로 2002년 5월 30~31일 이틀 간에 걸쳐 이뤄졌다.

항목	내용
기초조사	1~6학년, 성별, 채팅 및 이메일 사용시기·빈도, 채팅 1회당 이용시간, 채팅 및 이메일 이용 장소
인터넷 언어 사용정도·인식, 문법 지식	채팅 및 이메일 사용시 쓰는 글, 인터넷 언어를 모르는 친구를 놀린 경험이나 놀림을 당한 경험, 인터넷 언어에 대한 지식, 문법 지식
실제생활에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	일기장이나 편지에 인터넷 언어 사용여부 및 이유, 인터넷 언어 사용으로 꾸중을 들은 경험 및 그때의 느낌, 인터넷 언어의 국어파괴 비판에 대한 인식, 앞으로의 국어교과서에 인터넷 언어가 실리는데에 대한 인식

4.2 설문결과 분석

(1) 기초조사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은 대체로 3~4학년 때부터 인터넷의 대화방이나 이메일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팅이나 이메일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았더니, 다음 표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의 58%가 '3~4학년 때'라고 답했으며, 35%가 5~6학년 때부터라고 말했다. 얼마나 자주 친구들과 채팅을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7%가 일주일에 1~3일 한다고 대답했다.

	응답수	%
1~2학년때	3	3
3~4학년때	58	58
5~6학년때	35	35
기타	4	4

도내 초등학생들 중 절반이 넘는 60%가 1회 채팅시간이 30분 이하라고 답했으며 30분~1시간 한다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다(16%). 또한 67%의 학생이 주로 집에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채팅을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이 도심 외곽지역의 학교 학생들임을 감안할 때, 정보화물결은 이미 도농을 구분하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C방 또는 게임방이나 공공기관(학교, 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학생도 모두 20%정도로 나타났다.

	응답수	%
집	67	67
PC방 또는 게임방	11	11
공공기관	10	10
기타	12	12

(2) 인터넷 언어 사용 정도, 인터넷 언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문법지식

편의상 이 설문에서는 조사대상이 초등학생임을 감안, ‘인터넷 언어’라는 말 대신 ‘채팅말’, 혹은 ‘우리끼리 약속하거나 알고 있는 말’을 사용했다. 물론 그와 같은 용어에 대해서는 설문과정에서 조사대상(초등학생)에 대한 담임교사들의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음을 밝힌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채팅을 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때 주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한다는 학생은 57%로 나타났다. 표준어로, 문법에 맞게 사용한다는 대답도 30%가 나왔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높은 수치이다.

	응답수	%
표준어	30	30
인터넷 언어	57	57
기타	13	13

무응답이나 기타가 13명이나 나온 것을 볼 때, ‘언어’라는 것의 애매성이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음 표에서와 같이 한편 15%의 학생들이 인터넷 언어를 모른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친구를 놀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수	%
있다	15	15
없다	85	85

또한 인터넷 언어에 대한 인식과 간단한 문법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두 문항을 만들었는데, 77%의 학생들이 ‘짱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또한 12%의 학생들이 ‘잠수타려고 할려나?’를 문법에 맞는 말로, 13%의 학생들이 ‘열락처’를 표준어로, 그리고 역시 12%의 학생들이 ‘난 잘 못 본 거 가튼데’를 문법에 맞는 말로 알고 있어, 총 37%의 학생들이 문법지식이 아직 불완전함을 부족하나마 문항수의 한계로 알게 해주고 있다.

(3) 실제생활에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

다음 표에서와 같이 51%의 학생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일기장이나 편지에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45%의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응답수	%
예	51	51
아니오	45	45
기타	4	4

실제생활에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한 이유를 물었더니, 다음 표에서와 같이 친근하고 재미있어서(48%), 친구들이 다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22%), 그리고 채팅할 때 쓰던 버릇이 생겨서(18%)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수	%
채팅할 때 쓰던 버릇이 생겨서	18	18
친근하고 재미있기 때문	48	48
친구들이 다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	22	22
기타	12	12

인터넷 언어의 편리성, 친근함, 재미가 개인의 흥미와 요구를 중요시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난 행복한 세대인 ‘열린 세대’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언어를 사용했다고 웃어른이나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은 학생은 다음 표에서와 같이 14%에 불과했다.

	응답수	%
있다	14	14
없다	79	79
기타	7	7

또한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여, 인터넷 언어를 사용했다고 꾸지람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는 질문에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56%의 학생들이 반감 혹은 억울함을 느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인터넷 언어를 그냥 재미로 써본 건데 꾸중까지 듣는 것은 억울하다(18%), 인터넷 언어가 친근하고 편한데 꼭 표준어만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38%)는 항변이 돌아왔다. 반면 다음부터는 꼭 표준어만 사용하겠다는 '범생이'들도 28%, 같 등을 느끼고는 혹은 그런 상황을 상상하기에는 발달 단계가 늦은 응답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16%나 됐다.

	응답수	%
재미로 써본 건데, 억울하다	18	18
꼭 표준어만 사용해야 하나? 채팅말도 편한데…	38	38
다음부터는 꼭 표준어만 사용하겠다	28	28
기타	16	16

또한 아주 우려되는 결과가 설문을 통해 밝혀졌는데, 다음 표에서와 같이 65%의 학생들이 인터넷 언어가 국어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응답수	%
안다	15	15
모른다	85	85

이와 함께 미래의 국어교과서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즉 현재에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주장,

즉 인터넷 언어의 일부를 규범언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어교과서에 수용됐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다음 표에서와 같이 49%의 학생들이 국어교과서에는 표준어만 실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35%의 학생은 관심 없다고 답했으며, 오직 7%의 학생들만이 인터넷 언어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리는게 좋다고 답했다.

	응답수	%
국어교과서는 표준어만 실려야한다.	49	49
채팅말도 교과서에 실리는게 좋다.	9	9
관심없다.	35	35
기타	7	7

5. 결론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사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인터넷 언어의 현실세계로의 유입에 대해선, 아예 다루지 않거나 부가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다음은 일기·편지 조사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5.1 조사 결과 요약

일기장과 편지 조사결과 모두 인터넷 언어의 혼적들을 광범위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문어체 인데다 교사나 부모의 통제권하에 있는 일기장보다 구어체이고 동료 간에 사적으로 교환하는 편지에서 인터넷 언어가 더욱 많이 쓰이고 있었다. 가장 많이 찾아낼 수 있었던 인터넷 언어의 특징은 일기장과 편지 모두 '소리나는 대로 적기'였으며, 그 다음으로 이모티콘·의성어·시각적 이미지의 전달 등이었다.

설문조사결과 도내 초등학생들은 대체로 3~4학년 때부터 채팅 및 이메일을 사용했으며, 그 장소는 주로 집이었다. 채팅이나 이메일 사용시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반면 인터넷 언어를 모른다고 친구들을 놀리거나 놀림을 받은 경

힘이 있는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친근하고 재미있다는 이유로 일기장이나 편지에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인터넷 언어 사용으로 윗사람이나 교사 등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경험은 별로 없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문법에 맞는 말만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발감을 갖고 있으며, ‘인터넷 언어가 국어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의 국어교과서에 인터넷 언어가 실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5.2 연구결과의 한계 및 앞으로의 과제

(1) 연구결과의 한계

첫째, 언어라는 것은 지극히 가변적인 것이기에 인터넷 언어라고 분명히 단정지울 수 있을 만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기준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초등학생들의 글을 문장단위로 쪼개어 인터넷 언어의 혼적을 찾고, 그 빈도를 조사했다. 그러나 언어의 혼적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느 만큼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을 수 있다.

(2) 앞으로의 과제

인터넷 언어가 실제 초등학생들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본 조사결과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결과 또한 드러난 것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즉, 인터넷 언어와 실제 언어생활은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한다면, 언어교육이 과거보다 문법·맞춤법 교육을 덜 중시함으로써 빈곤해진 초등학생들의 문법지식이 인터넷 언어의 발생을 부추기고, 인터넷 언어가 또한 빈곤한 문법지식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인터넷 언어가 실제 언어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대한 연구과제는 컴퓨터 교육 입장에서 제기해볼 수 있다. 즉, 첫째,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하고, 둘째, 인터넷 언

어를 필터링해주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빈곤한 문법지식이 인터넷 언어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국어교육 입장에서 그 연구돼야 할 과제를 제기해볼 수 있다. 즉, 첫째, 말줄임표(‘…’)를 마침표(.) 대신 사용하거나, 필수문장성분(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을 생략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방식형성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 둘째, 문장부호의 과다사용 및 오용(예: 물음표나 느낌표를 겹쳐 사용하는 것)은 ‘감정의 절제’를 특징으로 하는 세련된 글쓰기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연구돼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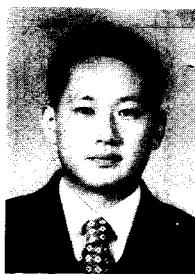
※ 참고 문헌

- [1] 구기철(2002), “통신 언어 필터링을 적용한 정보통신윤리 체험학습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석사학위 논문,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 [2] 김기혁(1996), 「국어 문법 연구」, 서울 : 박이정
- [3] 김민수(1971), 「국어문법론 : 변형생성적 구문론 연구」, 서울 : 일조각
- [4] 김영석(1999),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서울 : 나남출판
- [5] 남기심 · 고영근(1990),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 탑출판사
- [6] 노대규(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서울 : 국학자료원
- [7] 박현구(1997), “PC통신 계시물의 유사언어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8] 성기철(1992), “국어 어순 연구”, 「한글」 218호, 서울 : 한글학회
- [9] 성명희(2001), “PC통신어의 문장 양상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10] 이동우(1998), “채팅언어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 [11] 이정복(2000), “학생들의 인터넷 언어사용 실태와 해결방안”, 교육공동체 신뢰회복토론회,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

- [12] 고교문법자습서(2002), 텁출판사
- [13] 두산세계대백과 사전
- [14] 새한글맞춤법 사전(1992), 집현전

김 종 진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경영정보
전공 학사 및 석사
현재 홍익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현재 홍익대학교 강사
관심분야 : 경영정보, 컴퓨터
교육
E-mail : jjkim@cs.hongik.ac.kr

김 여 진



제주대학교 졸업
제주일보 기자
현재 제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
육과 학부과정
관심분야 : 컴퓨터 교육, 인터
넷 언어
E-mail : eternity007@dreamwiz.com

김 종 훈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학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ost-Doc.
연구원
현재 제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
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 컴퓨터 영재 교육,
컴퓨터 교육
E-mail : jkim@jejue.ac.kr